

은행권 '암체' 금리장사 '빈축'

서민 대출이자로 허리휘는데 시중은행 사상 최대 실적 잔치 '콧노래'

은행권이 순위는 '이자장사'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 금리가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는데 반해 수신금리는 제자리걸음을 보이면서 은행들의 주된 수익원인 예대금리차는 4년여 만에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서민들이 대출이자 부담에 신음하는 사이 예대마진에서 큰 이익을 본 시중은행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잔치로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21%로 2월보다 0.02% 올랐다. 이는 2015년 2월(3.48%)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7월

2.66%에서 8월 2.70%로 오른 이후 8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도 연 3.43%로 2월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연 4.61%로 전월대비 0.15% 올랐고,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는 연 4.32%로 전월에 비해 0.11% 상승했다.

이처럼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가 전방위로 오르고 있지만, 예.적금 등 수신금리는 변동없이 제자리걸음 중이다.

3월 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1.49%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로써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는 1.99%로 전월보다 0.03% 커졌다. 이는 지난 1월(2.0%)을 제외하면 2013년 1월 이후 4

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규취급액이 아닌 잔액을 기준으로 한 예대금리차는 2.28%까지 치솟는다. 이런 예대금리차 확대는 은행들의 실적잔치로 이어졌다.

올해 1분기 신한금융지주는 2001년 지주사 설립 이래 최대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고, KB금융지주도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60% 급증했다. 우리은행과 하나금융지주의 순이익도 전년 대비 각각 44%, 12.4% 늘었다.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2조2818억원으로 전년(1조8661억원)에 비해 22.3%(4157억원) 확대됐다.

이자이익의 경우 KB국민은행이 1조2642억원으로 전년대비 11.8% 늘었고, 신한은행은 9.8% 증가한 1조1697억원을 기록했다. 우리은행(1조1444억원)

과 KEB하나은행(1조410억원)의 이자이익도 각각 0.98%, 3.68% 늘었다.

저금리로 경영여건이 어렵다면서도 올 1분기 시중은행들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기록한 배경에는 대출금리 인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부채 억제를 주문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이자이익을 높일 공산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수익 대부분이 비이자이익이 아닌 예대마진에 의존한 실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해마다 은행들의 '암체' 금리장사를 막겠다며 현장감사나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인재용 기자

다향오리 인기 제품 최대 48% 할인

오리데이 맞아... 소비 촉진하는 다양한 행사 펼쳐

국내 오리업계 1위 브랜드 다향오리가 2일 오리데이를 맞아 오는 3일까지 다향오리 인기 제품을 최대 48% 할인 판매한다.

오리업계에서는 오리와 발음이 비슷한 2일을 '오리데이'로 지정해,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오리고기 소비를 촉진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다향오리는 오리업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오리데이를 기념한 할인행사,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마트 온라인 쇼핑

몰에서 다향오리 베스트셀러 18종을 최소 34%에서 최대 48%까지 할인한다.

특히 번거로운 조리과정 없이 손질된 재료로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반조리 제품도 선보인다.

한국인이려면 누구나 선호하는 불고기 소스에 깊은 불 맛을 살린 열탄불고기(400g)를 5,000원대에, 고향의 장맛 오리 주물럭(500g/4팩) 매운맛과 불고기맛을 각각 2만 7,000원대에 판매한다.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2017 다문화가정 '다정다감 문화교실'



전북은행, 다문화가정 '다정다감 문화교실' 성료

전북은행은 지난 28일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본점 19층 연수원에서 다문화가정 '다정다감 문화교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다양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형성을 돕기 위해 '나를 통해 타인을 보기'라는 주제로 펼쳐졌고, 행동유형검사를 직접해보고 서로 공유함으로써 다문화사회에

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가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디퓨저 제작과정을 알아보고 직접 만들어 보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는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가족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인재용 기자

농진청, 발효사료용 밀 수확적기·사료 조제방법 소개

출수 후 38일~40일 수확해야 사료가치 매우 우수

농촌진흥청은 국내 사료용 맥류의 용도 다양화를 위해 발효사료용 밀의 수확적기와 사료 조제방법을 소개했다.

사료용 곡물 수입량은 사료용 밀 149만5,000톤(2015년)을 포함해 해마다 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3.8%(2105년)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국내 사료용 밀은 일반 사료용 맥류

(청보리, 귀리 등)보다 추위에 강해 중.북부지역까지도 확대 재배가 가능하다.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밀에 비해 생산비를 절약할 수 있고, 재배기간을 14일 정도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곡실발효사료용 밀은 적기 수확 후 톨백에 45일 이상 저장한 다음 급여해야 사료가치가 높다.

곡실발효사료용 밀의 수확적기는 출수 후 38일~40일로 수확성은 479kg/10a, 수분함량은 40~45% 정도이다. 밀 곡실발효사료 만드는 법은 적기에 수확한 밀을 곡물용 톨백에 비닐 봉지(0.09mm)를 넣고, 수확한 밀 알곡과 발효제(처리농도: 106CFU) IL를 동시에 처리한다.

곡실발효사료용 밀의 발효품질특성은 pH4.0 이하, 젖산 함량 5.5%, 조단백질 함량 14%로 사일리지 1등급에 해당되며 사료로써 가치가 매우 우수하다.

조제된 발효사료용 밀은 톨백을 밀봉한 다음 통풍이 되는 그늘진 창고에 저장 후 45일부터 1년 동안 보관하면서 가축에게 급여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김보경 작물육종과장은 "곡실발효사료용 밀은 일반식용 밀에 비해 수확시기를 14일 정도 앞당길 수 있어 다양한 후작물을 이용한 작부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가소득 향상과 양질의 곡물사료 확보로 수입사료 대체해 국내 사료자급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이스타항공, 9월 출발 얼리버드 예매 오픈

이스타항공이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9월 출발 얼리버드 예매 오픈을 시작한다.

이스타항공의 얼리버드 이벤트는 탑승기간 4개월 전 찾아오는 특가 이벤트로 매달 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정기 이벤트이다.

이번 얼리버드 이벤트 특가 노선은 국내선 5개, 국제선 15개 노선으로 9월 출발 항공권을 미리 예약할 시, 항공권 부담 없이 여행 계획이 가능하다.

/인재용 기자

국내선의 경우 편도총액 최저가 김포-제주.김포-부산 1만4,900원, 청주-제주.부산-제주 1만5,900원, 군산-제주 1만6,900원 부터 제공된다.

또한 일본노선과 동남아 노선 등 국제선 15개 노선도 편도총액 최저가로 이벤트가 진행된다.

탑승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예매 및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istarjet.com)와 모바일 웹(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재용 기자

전북농협, 건전결산 위해 채권 집중 관리

전북농협이 지역 농·축협들의 여신 건전성 강화와 안정적인 채권관리를 위해 자사의 건전한 자산관리를 위해 지난 28일 지역본부 상생관에서 지역농·축협 채권관리 담당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부실자산 관리체계 개선과 단기 연체채권의 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경영구조를 구축해 고객의 자산관리와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상호금융여신부 염인식 과장의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한 채권관리 규정 해설과 대외 신뢰를 향상을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관련 교육을 실시했으며, 상호금융여신부이두언 변호사의 채권관리 법률사례와 효율적인 부실채권관리와 매각요령에 대해 농협자산관리공사의 교육이 실시됐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통해 고객의 자산관리와 건전경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신임 박찬례 전주우체국장 취임

전주우체국 제42대 박찬례 국장 취임식이 1일 전 직원과 관내 우체국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서 박찬례 국장은 "121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전북 1번지 우체국, 전주우체국에서 같이 근무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직원들이 즐겁게 출근하고 싶은 화목한 직장 및 고객이 다시 찾고 싶은 우체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전주우체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인재용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사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사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사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